

일송북

디지털 유목민 시대의 책, 일송포켓북 박병규_편집주간



'일송포켓북 시리즈' 각권 300쪽 내외 | 각권 값 3,800원

이제는 그야말로 이동성mobility의 시대. 휴대폰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 시대다.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이란 첨단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21세기형 정보 유목민을 말한다. 과거 유목민들에게 책과 안경, 시계 등이 필수 휴대품이었다면 디지털 유목민들에게는 휴대폰, 노트북, PDA 등이 필수 휴대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PDA와 같은 디지털 이동통신기기로 책의 정보와 재미를 얻는 시대에 종이책은 살아남을 것인가. PDA와 같은 이동통신기와 종이책은 정보와 재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아날로그인 종이책에 비해 디지털 이동통신기기는 간편한 휴대성과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저렴한 책 제작단가와 방대한 저장능력 면에서 우월하다. 그래서 한때 e북전자책이 나오면 종이책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전망임이 곧 드러났다.

5년 전 한 출판평론가는 인터뷰에서 "e북은 없다"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e북이 없다"니. 아직 열리지도 않은 시장이 괴멸할 것이라는 예언인가? "이런 식의 준비로는 e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종이책이나 e북이나,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죽기살기의 양자택일을 넘어 상생(相生)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은 디지털에 맞는 콘텐츠를, 아날로그는 새로운 아날로그로 탈바꿈하는 것이 전자책이 일시에 종이책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새로운 아날로그란 뭔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종이책 제작방식을 고수하면 e북이 아니더라도 출판은 망한다. 사람들은 TV모니터에 익숙해져 있는데 책 판형은 신국판 하나로 고정되다시피 했다. 책 만드는 사람들조차 동영상이 무조건 책의 정지된 화면보다 낫다는 고정관념으로 아날로그종이책에 움직임을 주는 시도를 등한히 했다. 새로운 상상력을 담보한 책으로 90퍼센트가 물갈이돼야 한다."

아날로그에 움직임을 주는 시도, 새로운 상상력을 담보한 책. 그러한 모색의 하나로 일송포켓북이 탄생했다. 포켓북은 미국

식으로 이야기하면 페이퍼백paperback에 해당한다. 이는 대중물이나 고전적 작품을 독자들에게 싼 값으로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출판물의 한 형태다. 따라서 문고판과는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

최근 문고판을 비롯한 다양한 판형의 책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종이책에 움직임을 주기 위한 시도로 포켓북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러면 왜 포켓북인가?

일송포켓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새로운 출판시장을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기대한다. 우선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판형의 종이책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값이다. 따라서 e북과도 경쟁이 가능하다. 둘째, 작고 가볍다. 한손에 쏙 들어오고 주머니와 작은 핸드백에도 쉽게 들어간다. 따라서 들고 다니기가 편하다. 다시 말해 이동성과 휴대성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셋째, 내용면에서도 최고 작가와 수준 높은 작품들이다. 일송포켓북은 우선 이문열, 이청준, 박범신 등 한국 대표작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소설 베스트 10권을 펴냈다. 올해 안으로 100권 가량을 펴낼 계획이다. 또한 한국비소설 베스트와 해외물 베스트 등도 계속해서 출간할 생각이다. 아울러 국내필자들을 발굴하는 참신한 기획물도 준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외국처럼 하드커버 시장과 포켓북 시장이 적절하게 분화되어 있지 못한 점은 넘어야 할 우리 출판시장 전체의 과제다. 또 포켓북의 당초 취지에 맞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종이의 질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질 좋은 종이에 익숙해져 있는 독자들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태세다. 포켓북 판형에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상상력을 키우는 것도 숙제다.

출판사 외적으로는 전반적인 독서문화 수준의 향상, 즉 언제 어디서나유티커터스 책을 읽는 풍토가 요구된다. 지하철, 버스, 커피숍 어디에서나 한손에는 핸드폰, 다른 손에는 일송포켓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할 날을 기대해 본다. **★*★**

인디북

'코미디'라고 제목 달았지만 알고보면 감동 결정체입니다 김연순 인디북 편집장

출간한 지 3년이 되었지만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책이 있다. 바로 《휴먼 코미디》다. 현실이 갈수록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만큼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든 책이었는데 의외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안타깝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점이 있기는 했다. 책을 만들던 당시 책 표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휴먼 코미디》가 속한 클래식 레터북 시리즈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되고 예쁜 표지로 특히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그동안 이 시리즈의 디자인을 맡은 디자이너에게 너무 의존하다 보니 새로운 작품에 맞는 컨셉트를 표현해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의 시선도 붙들지 못하게 마련이다.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제목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휴먼 코미디라는 제목 때문에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다. 코미디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말 그대로의 코미디만 연상시킨 것이다. 이러한 실수를 만회할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선보이고 싶다. 그 내용 만큼은 어떠한 결점도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빛을 발하고 감동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열네 살이 된 호머는 우편배달부 일을 하면서 전쟁의 아픔을 겪는다. 그가 겪는 것이라고 해야 전쟁 중에 편지를 배달하는 일이지만 도저히 전달하고 싶지 않은 전사통지서는 소년의 여린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깊은 상처마저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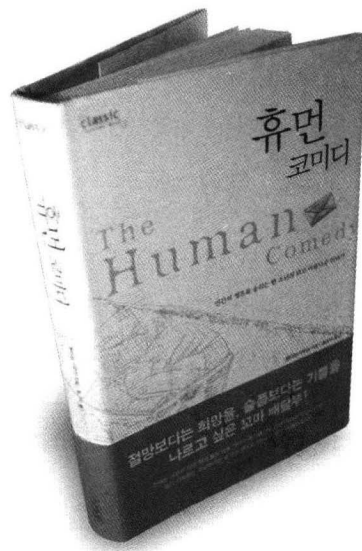
소년이 전하는 통지서 한 장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절망과 슬픔의 충격에 휩싸여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소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까지와는 의미가 다른 눈물을 흘린다. 소년은 비로소 자신이 어른이 되었음을 느낀다.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보고 울게 된 것이다.

소년은 더 아픈 경험을 한다. 자신의 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세상에 언제나 있기 마련인 고통스런 일 앞에서 소년 역시 절망한다. 소년은 슬픔에 빠져 울다가 깨닫는다. 자신을 울게 만든 건 연민임을... 그리고 고통을 짊어지기로 한다. 그저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리

고 형 대신 고향으로 돌아온 형의 분신 같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한다.

이 작품은 아르메니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낸 윌리엄 사로얀에 의해 쓰였다. 그는 20세기 미국의 주요작가 중 한 사람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다가 《네 인생의 시간》으로 풀리처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학의 상업화를 비판하며 수상을 거부한다.

작가가 이런 만큼 이 작품의 순수성과 휴머니즘은 빼어나다. 인간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맑고 아름다운 소년과 그림 같은 도시의 착한 사람들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추천**



《휴먼 코미디》윌리엄 사로얀 지음 | 황성식 옮김 | 288쪽 | 값 9,000원

황매

김창현 편집부장

그림, 글을 만나다. '황매 픽처북 시리즈'의 첫 주자

그림이 갖는 사회적 효용성을 믿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화가 갖는 사회적·문화적 힘을 믿는다. 생긴 지 불과 3~4년, 그리고 여전히 신생의 풋풋함과 어설피름을 함께 간직하고 있던 작년 초 우리 회사의 믿음 중 하나였다. 만화시장이 극도의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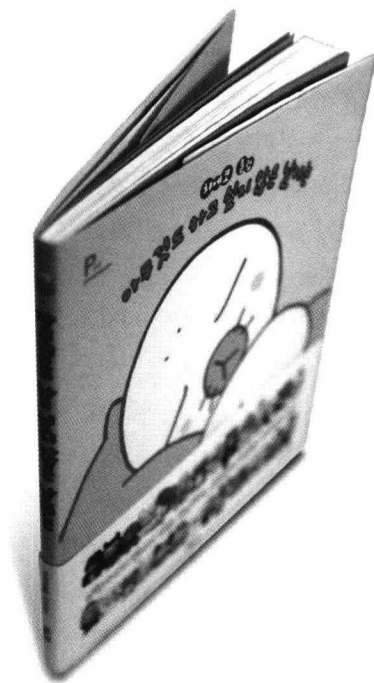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고의 전환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 만화의 근원적 출발점, 즉 그림이었다. 만화와 그림, 이 둘의 접점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역시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혹은 뻗은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만화와 문학, 만화와 프로파간다 등등은 그런 대로 많이 써먹었던 시도였다. 하지만 만화를 그림으로 이해하거나 그림을 만화로 인식하는 쌍방향의 교류는 의외로, 구태의연한 문화적 도도함 같은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없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에는》은 여러 모로 우리의 상식을 깬 책이었다. 내용은 차라리 허무하기까지 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이런 식의 섹션이 세 편 더 수록되어 있다. 다른 섹션들도 모두 비슷한 전개방식을 갖고 있다. 요즘 말로 썰렁하다. 그러나 그 썰렁함 속엔 묘한 울림이 있다. 재수 없는 날엔 그냥 막연히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라는 것이며, 너무 화가 나는 날에는 자기환상에 빠져볼 것, 쓸쓸한 날에는 그냥 멍하니 울어버리는 메시지쯤은 보통 사람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그렇고 그런' 덕담을 파문처럼 퍼지게 만드는 도구, 그것이 만화였기에 이 책은 매력적이다.

짧고 간결하지만 울림이 있는 메시지와 귀엽고, 팬시적인 만화, 혹은 그림이 만나는 이 책은 일본에선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일명 '팬시북'이라고 불리었던 것. 서사적 형식의 장편극화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감수성, 그 한 편린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보편적인 정서로 일반화하는 방식이다. 형식면에서는 실제 팬시제품, 게임 소재로 개발됨으로써 원소스멀티유즈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 메이저 출판사 가운데 하나인 고단샤와 첫 거래를 트게 만들었던 이 책은 그만큼 기대도 컸다. 물론 판매의 대약진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과연 우리나라 독자 반응이 어떨지, 시장에

서 유효할지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아울러 이 한 권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도 아니었다. 우리에게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곧이어 국내 만화가들을 동원하고, 플래시 효과를 가미한 동영상 CD가 첨부된 업버전판 픽처북들이 속속 발행됐다. 총 50쪽 남짓의 이 픽처북들에 대한 최종 결과는, 그리고 판단은 잠시대기. 우리는 지금 숨을 고르고 있다. 이미 만화계 일각에서 유의미한 시도로 인정받고 있는 이 작업물들이 좀더 양적으로 팽창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흔히 틈새시장이라고 불리는 그 시장으로의 투입을 위해. **★**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에는》차메코클럽 프로젝트 글·그림 | 48쪽 | 값 4,800원

가까이 좀더 가까이, 우리 입말로 옮긴우리 시대 고전들

“자네, 시간 있는가?”

3년 전인가 ‘변산 농부’ 윤구병 선생님이 필자를 부르셨다. 바쁜 농사철을 보내시고, 잠깐 서울에 올라온 길이셨다. 찾아 뵙고 싶어도 좀체 시간 내기 어려운 분이시라, 만사 제쳐놓고 달려갔다. 참고로 필자는 대학교수 시절, 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

“이거, 책으로 내보지 않겠는가?”

건네주신 건 뜻밖에도 두 권의 모태가 된 《빠빠라기》와 《들어가, 양키들아》의 교열본이었다. 당신이 손수 고른 번역본에 다 꼼꼼하게 교열을 보신 것을 복사한 책자였다. 아마 제자라는 위인이 십수 년째 출판사를 한답시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정을 전해 들으셨던 모양이었다.

윤구병 선생님이 누구신가? 《꼭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몸 가는 데 마음 간다》《잡초는 없다》 같은, 누구에게나 술술 읽히면서도 곰곰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 시대의 화두와 같은 책을 낸 이름 짜한 저자 아니시던가? 뿐만 아니라 ‘어린이 마을’ ‘올챙이 그림책’ ‘달팽이 과학동화’를 기획해, 어린이책 출판에 새로운 지평을 연 장본인이시기도 했고.

사제시간의 정을 떠나, 이런 분이 기획하고 직접 손 본 원고를 퍼내는 게, 손해 보는 장사일 턱이 없었다. ‘우량 스승’의 ‘불량 제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막상 이 원고가 《윤구병이 다시 읽은 책 1 - 흰둥이들아, 들어봐라!》《윤구병이 다시 읽은 책 2 - 양코배기야, 들어봐라!》로 세상에 빛을 보기까지는 3년을 끌어야 했다. 모든 게 필자의 무능과 게으름의 탓이었으니, 입이 열 개인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굳이 핑계를 찾는다면, 해마다 듣는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시장 환경 말고도, 기술을 끌고 무모하게 저지른 시골행, 친형 같은 분의 발병과 죽음이라는 사건이 걸쳐 있긴 했지만.

잘 나가는 글쟁이에다가 앞서가는 기획자, 대학교수라는 안정된 신분을 때려치우고, ‘자주와 우애와 협동과 평등’의 공동체를 꿈꾸며 전북 변산에서 농부의 길을 걸으시는 분이, 일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오실 때면 환갑이 넘은 노구를 서너 시간씩 버스에 내맡겨야 하는 분이, 굳이 이 책을 펴내시려 한 속뜻은 무엇일까? 필자로서는 막연히 넘겨줄어 볼 수 있을 뿐이다.

“‘제국주의의 망령’과 ‘무한경쟁의 자본주의’가 탐욕스

럽게 사람의 삶을 갇아먹고 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엄연한 현실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모두의 눈을 밝혀줄, 더 많은 사람이 읽어야 마땅한 우리 시대의 고전이 어색한 번역 문투 때문에 널리 퍼지지 못한다. 그래,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근로대중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손을 보자. 우리말 질서에 맞게 과감히 번역을 뜯어고치고, 되도록이면 우리 입말에 가깝게 말투를 바꾸자. 돌아가신 이오덕 선생도 이미 하신 일이 아니던가!”

필자는 선생님이 원본과 국내 번역본 모두를 꼼꼼히 살펴보는 공을 들이신 사실을 안다. 8개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분이니 옮김이라 해도 거칠 것 없는 것을, 굳이 ‘교열’로 표현하셨다. 물론 이런 겸양 자체가 더욱 당신다운 모습이겠지만 말이다. **★**



《윤구병이 다시 읽은 책 1 - 흰둥이들아, 들어봐라!》에리히 쇠르만 엮음 | 장백 | 216쪽 | 값 8,500원
《윤구병이 다시 읽은 책 2 - 양코배기야, 들어봐라!》썸. 라이트 밀스 지음 | 장백 | 280쪽 | 값 9,000원